



국제 표준화 동향 〈국제기구 동향〉

ISO(국제표준화기구)

식품 및 사료의 공급과정 표준제정

식품 및 사료의 공급과정 추적 시스템과 관련된 신규 규격이 필요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규격(ISO22000:2005)의 세 번째 시리즈인 '사료 및 식품 공급과정 추적-시스템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일반원리 및 기본요건' 규격(ISO/DIS 22005)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규격은 ISO내 '식품' 기술위원회의 WG9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발간을 목표로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와 공동 작업 중이다.

동 규격은 사료와 식품 공급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이 참고해야 할 규격이며, 규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 안전 및 품질 향상 지원
- 식품의 전력 및 원산지를 기록
- 제품의 폐기나 리콜을 용이하게 함
- 사료 및 식품 공급과정에서 과정별 담당기관 확인
- 제품에 대한 특정 정보의 확인
- 이해관계자와 소비자간 정보 공유

생산자가 사료 및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광우병과 구제역 등과 같이 가축에 전염성 높은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오염문제가 전에 없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조류독감으로 가금류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식품과 사료의 공급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추적 시스템은 제품의 전력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사료와 식품 공급과정 어디에 제품이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문제점을 찾아 리콜이나 폐기 할 수 있어야 한다.

WG 9 회원들은 동 국제규격으로 인해 사료 및 식품업계가 국제적으로 인정한 추적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등 규격의 내용은 세계적인 문화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고,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며, 시간·돈·인력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없애줄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이기 때문에 사료 및 식품 공급과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출 처 | ISO FOCUS 2006년 4월호

작성자 | 생물환경표준과 김은영(tel. 02-509-7262)

시장 및 여론 조사에 대한 표준제정 움직임

시장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 규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상공회의소/유럽여론·시장조사협회가 제정한 국제규약(ICC/ESOMAR Code of Conduct)*이 출현했던 50년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이 규약에 따라 면접관 자질관리계획(Interviewer Quality Control Scheme)이 1980년대에 영국에서 개발되었고, 이것은 최초의 품질규격인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요건'규격(BS 7911:1998)의 모체가 되었다.

*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유럽여론·시장조사협회(European Society for Market and Opinion Research)가 공동으로 제정한 마케팅 및 사회조사 활동을 위한 국제규약임.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고유한 국가 표준을 개발하였으나, 1990년대 말 유럽시장조사기구연합(EFAMRO:Europe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Market Research Organizations)**이 개발한 최초의 조사품질관리원칙인 유럽시장조사품질표준(EMRQS:European Market Research Quality Standard)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표준 제정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 1992년 설립된 EU내 시장조사기관 연합기구로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이 회원으로 있음.

유럽시장조사기구연합은 유럽시장조사품질표준을 바탕으로 ISO 국제규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1년 관련 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면서, 유럽시장조사기구연합은 AENOR(ISO 스페인대표기관)에게 '시장 및 여론조사' 기술위원회(ISO/TC 225)를 맡을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동 위원회는 온라인과 인터넷 면접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작업반을 설립하였다.

시장조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산업이다. 2004년도 시장 조사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15억 달러였는데, 이는 2003년도의 189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것으로서 대략 7.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인당 소비된 시장조사 비용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영국이 39.89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개발도상국에서 시장조사 사업이 집중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조사 분야에 투자한 비용을 보면 상위 1,000개의 기업이 전 세계 투자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조사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3/4이 특정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국가 프로젝트는 전체 거래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시장 조사 서비스 실시건수를 보면 전체 거래총액의 62%를 차지한 상위 25개 기업체에 집중되어있다.

시장 조사 관련 국제규격이 발간됨에 따라, 조사 기업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각기 다른 수많은 국가 규격이 아니라 하나의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 동 국제규격은 개발도상국에서 투명성을 창조하고 표준화를 촉진시키며, 관련 서비스 분야의 위상 재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출 처 | ISO FOCUS 2006년 1월호

작성자 | 문화서비스표준과 이연범(tel. 02-509-7252)

프 랑 스

프랑스표준협회, 서비스규정개발 특별작업반에 참여

프랑스표준협회는 서비스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특별작업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특별작업반의 목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요소를 제정하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유럽공동체(EC;European Commission)는 기업체에게 서비스 품질에 대한 표준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표준화위원회에 개발토록 요청하였다.

이 표준문서는 기업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서를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 문서로서 사용될 것이다.

출 처 | <http://www.afnor.fr>

작성자 | 에너지자원표준과 김은숙(tel.02-509-7277)

2006년도 표준화 연구조사사업 소개

다음은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 일본공업표준조사회(표준부회)에서 논의된 2006년 표준화 연구조사 사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 것이다.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일본이 기술적 우위에 있으나 국제표준이 정비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국제표준안을 작성·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2006년 신규사업

2006년도에 새롭게 개시된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나노기술·재료
 - 물리진자에 의한 도료와 도막의 물성측정법 표준화
 - 섬유복합재료의 발전형 및 기초적 강도시험법 표준화
 - 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장비의가속수명시험법과 그 특성평가시험용 교정시료 표준화
- 환경·자원·에너지
 - 신규 POPs(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후보물질의 분석법 표준화
- 분야 횡단적 기본기술
 - 제품의 기하공차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조사

(3) 향후 일정

- 4월 - 경제산업성 홍보물과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위탁처 공모
- 5월 - 공모설명회 개최, 사전조사와 관계된 외부 전문인력 선정·의뢰 및 공모 마감
- 6월 - 응모제안서 사전심사, 사업실시자 선정위원회(위탁처 선정위원회는 경제산업성 기준인증부 내에 설치)개최 및 위탁처 결정

출 처 | <http://www.jisc.go.jp>

작성자 | 디지털표준과 김경아(tel.02-509-7267)



호 주

수영장 및 온천탕 관련 호주규격 소개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호주표준협회는 수영장 및 온천탕 시설 설비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관련규격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규격에 따르면, 온천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여과시설 · 위생시설 · 발열장치 · 난류 발생시설 · 표면정수장치가 설비되어 있고, 관리 목적을 제외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수영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 가둠 구조물. (AS 2610.1-1993, 1.3.23항)

현재 호주에는 공공 및 개인 온천탕에 관련된 규격 2종과 온천탕 및 수영장의 전기시설에 대한 규격 1종이 있다:

- 온천탕 제1부:공공 온천(AS 2610.1-1993)
- 온천탕 제2부:개인 온천(AS 2610.2-1993)
- 허가 및 시험 규정-온천 및 수영장의 전기시설(AS/NZS 3136:2001)

또한 온천탕의 관리 및 수질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두 권의 지침서가 있다:

- 주거용 온천-선정, 관리 및 운영(HB 112-1998)
- 공공 수영장 및 온천의 수질관리(HB 241-2002)

공공 온천에 대한 현행 호주 규격은 1993년 호주소비자연맹, 호주수영장온천협회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공공 온천에 대한 호주 규격은 온천탕을 폐쇄했을 때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 장치가 온천에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흡입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배선에 적어도 두개의 배출구가 최소 600m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해 있어야 한다.

출 처 | <http://www.standards.org.au>

작성자 | 기술정보신뢰성과 류선혜(tel.02-509-7232)

기 타

제5차 국제표준협력체(WSC) 회의 보고 -2006. 02. 10, 스위스 제네바

- 제5차 국제표준협력체 회의(06.02.10, 스위스 제네바) 주요 논의 사항
 - 특허권 정책 협력
 - '05년 특허권 정책 태스크 포스팀은 ISO/IEC/ITU 공동 특허권을 마무리하고 '06년 7월 중순경 ISO/IEC/ITU 회원기구가 이를 수용 할 것을 촉구

- 태스크 포스팀은 공동 특허권 이행 감시·관련 정보 교환·(필요할 경우)제안된 수정 사항을 다루기 위해 유지될 것임
- 국제표준협력체 워크숍 실시
 - 보건 기술(Health Technologies)
 - '04년 의료기술 표준에 대한 워크숍 개최
 - ISO-글로벌 부합화 태스크 포스 간 제2차 MOU(ISO/TC 194:의료장치의 생물학적 평가 관련)와, 의료용 전기기기(IEC/TC 62) 간 제3차 MOU 마무리
 - 가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에 관한 워크숍('06.2.2~3, 스위스 제네바)
 - ITU에서 홈 네트워킹 등 관련 작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바, 국제표준협력체는 ISO/IEC와 작업이 겹쳐 지지 않도록 요청
 - 보안에 관한 워크숍(2007년도 개최 예정)
 - 보안에 관한 ISO/IEC 자문그룹(의장:Dr. George Arnold)은 국토방위, 자연 재해 및 IT 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차기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제안
 - '06년 5월 사이버 보안에 관한 ITU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
 - 차기 워크숍
 - '07년,'08년에 개최될 워크숍 주제:교통 수단 및 나노 기술
- 표준개발기구(SDO)와의 관계
 - 유럽무선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신규 전략서 발간
-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 회의(WSSIS) - '05년 튀니지
 - '05년 12월 "WSSIS 결과물" 발간
 -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지 의무 및 아젠다 사항을 다루고 있음(예:디지털 양극화 감소·인터넷 관리·지적 재산권 사항·권고 사항 이행)
- 국제표준협력체 표준화 커뮤니티 관리 코스
 - '05년 4월 표준화 커뮤니티 관리 코스·ISO e-learning(대상:표준화 관리자)·IEC e-training(대상:TC/SC 위원) 실시
 - '06년 7월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
- '07년도 세계 표준의 날 주제
 - '표준과 시민(Standards and the Citizen)'을 제안했으나 '시민'이라는 단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
- 차기 회의 일시:2007.02.09(금)

출 처 | 제5차 국제표준협력체(WSC) 회의 보고

작성자 | 국제표준협력과 박성현(Tel 02-509-7399)